

기억은 어떻게 정치적인 것이 되는가

- 영화 <애프터 양>(2022)

김지안 회원

근미래 사회의 ‘진보’와 억압

<파친코>로 잘 알려진 코고나다 감독의 장편영화 <애프터 양>(2022)은 휴머노이드 양과 양이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다. 양은 돌봄 특화 휴머노이드로, 이들은 주로 아시아계 자녀를 입양한 미국 가정에 팔려 그들의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녀들이 입양되기 전 태어난 국가의 문화와 연결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잃지 않도록 여러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유에서 동양인의 외양으로 제작된 양은 중국에서 태어나 입양된 제이크의 딸 미카를 돌보면서, 중국의 문화와 각종 정보를 미카에게 알려준다.

휴머노이드가 일반 가정에 상용화된 풍경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애프터 양>의 배경은 근미래의 미국 사회로, 현재와 유사하면서도 발전한 기술과 인종적/젠더적 다양성이 일상적으로 보편화된 세계다. 도입부의 가족 단위 댄스 콘테스트 장면이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참여하는 가족들은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가 다양하게 구성된, 어떤 진보한 사회를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인공 가족 역시 회사에 다니며 가장 역할을 하는 흑인 여성 키라, 중국에서 입양한 딸 미카와 휴머노이드 ‘중국인’ 양, 찻잎을 파는 점포를 운영하는 백인 남성 제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진보’한 사회인 이 공간에 흐르는 억압적인 정동이다. 진보적인 기술과 다양성으로 표현되는 이 사회에서, 특히 부드러운 색감과 따뜻한 분위기의 영화에서 이러한 정동은 어디에서 기인할까?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다.

기억은 어떻게 정치적인 것이 되는가

영화는 먼저 형식적으로 이러한 억압에 접근한다. <애프터 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댄스 콘테스트를 하던 중 양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제이크는 양을 수리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방문하게 되고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양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과 감정을 드러낸다. 제작사인 대기업은 제이크가 고장 난 기계를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할인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사실 수리점에서는 양이 동양인의 외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감을 내비친다. 키라는 수리가 어렵다면 얼른 일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만, 마지막으로 방문한 휴머노이드 박물관에서 관장은 휴머노이드들의 연구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양의 고장 난 몸을 기부해 주길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바로 휴머노이드의 제작사인 대기업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가 스파이웨어를 심었고, 휴머노이드들은 모종의 밝혀지지 않은 기준과 이유에 의해서 하루에 한 개씩 자신이 선택한

기억을 영구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이다. 제이크는 이 저장장치를 통해 기억 영상들에 접근하며 양이 남긴 기억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한(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양은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특히 미카와는 오히려 가장 혈연관계처럼 보이는 외양을 하고 제이크의 가족들과 살아왔지만, 그가 고장 난 이후에는 양은 빨리 처분하고 대체되어야 하는 자원이자 비인간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의 대상이 된다. 양의 과거를 담은 기억 영상들은 양이 돌봐온 가족들과의 기억 속에서 양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비인간으로서 양이 경험해 온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제이크는 양의 연인인 복제인간 에이다, 미카와 함께 기억을 나누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그의 부재를 애도할 수 있게 된다.

돌봄 노동자로서 양

인간 노동 중에서 ‘돌봄’이 비인간 기계로 대체된 사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 양의 기억들은 제이크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세계가 가능하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부재해야 하는 질문들을 제기하고 드러낸다. 양은 특정한 의미를 갖는 사람처럼 보이고 역할을 하도록 외양을 부여받아 그것에 따라 행동해 왔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영



▲ <파친코>로 잘 알려진 코고나다 감독의 장편영화 <애프터 양>(2022)은 휴머노이드 양과 양이 돌보는 가족들의 이야기다. 사진 : 네이버영화



▲ 양이 쓰러진 후, 가족들은 양이 남긴 기억의 세계를 만나게 되고, 이전까지 전혀 알지 못한(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사진 : 네이버영화

화의 중반부에서 양은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의 경험인지 단지 주입된 것인지 묻기도 하고, 동양인의 외양을 했지만 ‘나는 중국인일까?’라는 반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양과 같은 휴머노이드들이 인간 사회의 노동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문은 부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이크의 아내 키라는 줄곧 지금까지 미카의 돌봄이나 정체성의 문제를 양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미카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에서 입양한 미카가 느끼고 경험하는 혼란과 차별에 대해서 직접 고민하는 과정 없이, 함께 사는 양이라는 존재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즉 자신을 바꿀 생각이 없는 채로 단지 소수성의 일부를 관용하는 태도는 미카와 양이 마주하는 사회적 차별과 맞닿아 있다.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는 어떤 노동을 바라볼 때, 그것을 수행하는 존재와 그들의 조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때 어떠한 편리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한 환경도 정말로 진보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없다. 양이 돌봄 노동자로서 보낸 과거의 기억들은, 제이크의 경험과 현재를 바꾸는 단초가 된다. 현실에서 이러한 ‘기억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공적인 것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애프터 양>이 남기는 질문들처럼 우리는 과거의/가려진 기억과 노동을, 현재를 바꾸기 위한 조건으로 사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알터**